

간단이슈 점검

G20 전 알아야 할 것들

- 비핵화 레버리지 사용하는 시진핑
- G20에서 고위급 협상 재개 예상
- 미국 재선 일정 점검
- 시진핑 주석의 합의 의지

Fixed Income / 허정인

☎ 82-2-3774-0451

✉ jeongin@futures.co.kr

G20 전 알아야 할 것들

▪ 비핵화 레버리지 사용하는 시진핑

- 시진핑 주석은 돌연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 구체적 대화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선물이자 무기(비핵화 6자구도 미국-북한-한국-중국-러시아-일본)라는 분석이 다수
- G20 시나리오: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50%) 협상 결렬(30%) 극적 협상(20%)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고위급 협상을 재개한 후 올해 말~내년 초 잠정 합의(완전한 합의X)

G20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은 돌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

대북 관련 주요일정	
2019년 6월 10일	북한, 트럼프에 생일 축하 친서 보냄(당시에 비공개)
2019년 6월 10일	시진핑, G20 불참설 확산 '미국이 고집하면 끝까지 싸우겠다'
2019년 6월 11일	트럼프 "G20 불참 시 나머지 수입품에 즉시 고관세 부과"
2019년 6월 15일	트럼프, 홍콩 시위와 관련 시진핑 주석 비판
2019년 6월 17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계획 보도
2019년 6월 18일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 좋은 통화를 나눴다" G20에서 트럼프-시진핑 회동계획 성사
2019년 6월 19일	시진핑,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 발표 "한반도 문제 진전에 적극 기여하겠다"
2019년 6월 20일	트럼프, 북한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
2019년 6월 20~21일	시진핑, 평양 방문. 북-중 정상회담
2019년 6월 23일	북한 노동신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고 공개
2019년 6월 28~29일	G20 정상회의
2019년 6월 29~30일	트럼프, 방한 예정(김정은 위원장 만남 가능성도 등장)

자료: NH선물 리서치센터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



자료: NH선물 리서치센터, 뉴시스 언론보도 재인용

G20 전 알아야 할 것들

▪ G20에서 고위급 협상 재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과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등 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금번 G20에서 고위급협상 재개 합의 예상
-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서틀협상에서 미중간 합의가 거의 90% 진행됐다고 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합의재개가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양국의 갈등 지점이 첨예하고 누구 하나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재개 이후 전격합의는 어려울 것

을초 부터 미중 고위급은 양국을 오가며 서틀협상을 해왔음

무역갈등 확대의 트리거 요인 요약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일지

구분	장소	날짜	내용
1차	미국 워싱턴	1월30~31일	-류허 중국 부총리 방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접견
2차	중국 베이징	2월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방중
3차	워싱턴	2월21~24일	-류허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방미. 협상 일정 이틀 연장 -트럼프 대통령 접견
4차	베이징	3월28~29일	-라이트하이저 대표, 므누신 장관 2차 방중
5차	워싱턴	4월3~4일	-류허 부총리 올해 3차 방미 -트럼프 대통령 접견 미정
6차	베이징	4월30일	-라이트하이저, 므누신 3차 방중
7차	워싱턴	5월8일	-류허 부총리 4차 방미



그래픽: 이승현 디자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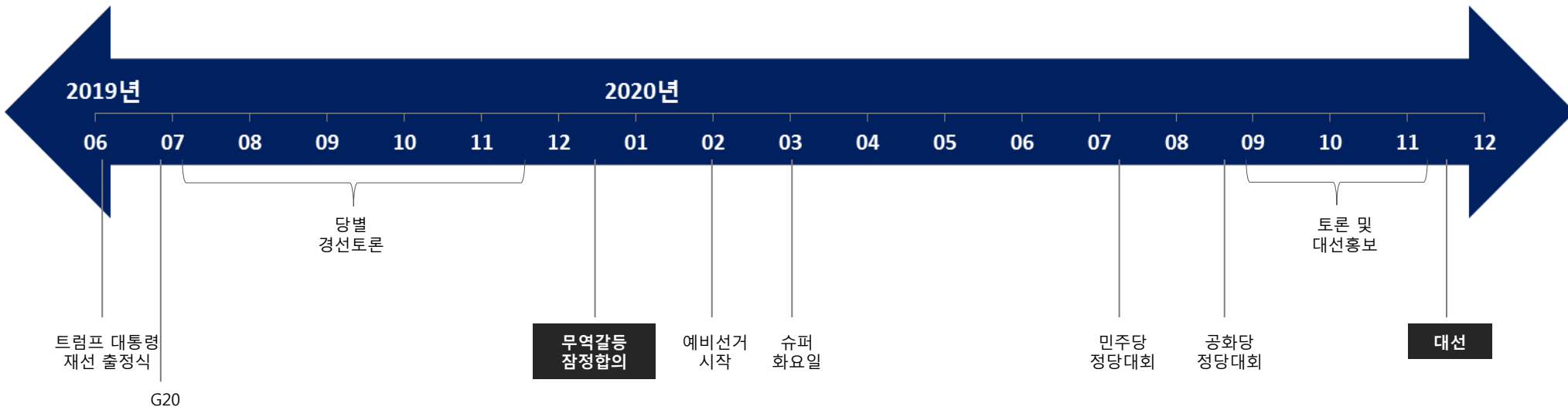
1. 무역협상 이행을 위한 중국의 국내법 개정과 관련, 중국 측의 갑작스런 입장 번복
2. 협상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시 관세철폐(미) vs 협상타결과 동시에 관세철폐(중)
3. 중국의 협정 불이행 시 미국은 관세를 재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는 불허(중국의 반대)

G20 전 알아야 할 것들

■ 트럼프가 원하는 '결정적' 시점에 잠정합의 예상

- 아직까진 미중 무역분쟁이 지지율 결집에 유효. 트럼프 당선 이후 러스트벨트와 팜벨트의 성장률이 급등
-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적 시점에 교역갈등 이슈를 완화시키면서 성장률과 지지율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가 선택할 그 시점은 대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비선거 직전 '4분기 후반~내년 초'가 될 전망

대선레이스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이때부터 성장률 확보+지지율 결집을 위해 보여주기 식 잠정합의를 도출할 것



G20 전 알아야 할 것들

▪ 시진핑 주석도 합의를 원한다

-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계획 중. 기존의 국가주석 중임제(최대 10년)를 폐지하고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
- 명분을 위해 받쳐줘야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미국에 굴복하지 않은 듯한 외교적 이미지까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 전격적 합의는 어렵더라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치적 결과물을 위해 잠정 합의를 도출할 것

장기집권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



자료: NH선물 리서치센터, 시사플러스 언론보도 재인용

고속성장을 나타냈던 중국의 GDP 증가율은 6%대 언저리에서 머무는 중



자료: NH선물 리서치센터